

테마칼럼

예술로의 초대

이세영·김민수

김고흥에 답하다

경제로 세상보기

여행과 생활



이승우

더러 삶을 여행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삶은 엄격하고 구체적이다. 소가 없으면 소 우리가 깨끗하겠지만 소로 인한 이익도 사라진다는 취지의 말이 잠언에 나온다. 삶은 그런 것이다.

여행자의 눈은 새로운 것을 찾아 두리번거린다. 익히 보아온 것들은 그냥 흘러보내고 이색적인 것, 친숙하지 않은 것에 눈독을 들인다. 같은 것이 아니라 다른 것, 늘 보던 것이 아니라 보지 않았던 것에 대한 마음의 이끌림이 사람을 길에 세운다.

새로운 풍경, 낯선 경험에 대해 탐욕적인 것이 여행자이다. 여행길에 나서면 의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너그러워지고 여유로워진다. 돌아와 있는 생활의 현장을 떠났으니, 여유롭고 낯선 세계를 경험하려는 욕구로 충만하니 너그러워진다. 낯선 지방에서 부딪치는 모든 낯선 것들이 반갑고 경이로울 수밖에 없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이질적인 풍속,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나도 불편을 느끼지 않고 오히려 즐거워하기까지 한다. 그것은 여행의 시간이 일시적이고 임의적이며 일종의 비현실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만 여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딘가에 머물러 살아야 한다면, 비현실적 감각만으로 지낼 수 없는 상황이라면, 이야기는 좀 달라진다. 가령 한국에서 1년을 살아야 한다면, 여행 가방만으로 호를 전전할 수 없다. 이국의 어느 마을에서 거처할 집을 마련하려고 하는 순간, 여행은 생활로 전환한다. 그 순간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거나 아주 조금만 들어오고, 통하지 않는 언어, 이질적인 풍속은 관대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해할 수 없는 것은 이해할 수 없고, 불편한 것은 그냥 불편하다. 생활인

의 감각과 여행자의 감각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행자의 감각은 이색적이고 낯선 것에 이끌리지만 생활인의 감각은 익숙하지 않은 것, 낯선 것을 경계한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대개 불편하고 낯선 것은 대개 불안정하기 때문이다. 여행자가 추구하는 것은 모험이지만 생활인이 추구하는 것은 안정이다. 여행은 지나가지만 생활은 한곳에 붙박이는 것이다. 여행은 관계를 주월하거나 후회하지만 생활은 관계를 맺는 것이다.

1년을 살기로 하고 런던에 오자마자 부딪친 것이 주거의 문제였다. 큰 여행 가방 여러 개를 들고 임시거처를 오가며 지낸 두 주 동안 내 생활은 엉망이었다. 짐도 풀지 않은 상태에서 풍경도 눈에 들어오지 않고 책도 읽기가 어려웠다. 여행자의 여유도, 생활인의 안정도 누리지 못했다. 외국인이라 그런지 6개월치 월세를 미리 내라고 하고 상당액의 보증금까지 요구한다. 임대 기간이 끝나는 날 집의 상태를 보고 보증금에서 돈을 제한하는 설명을 들었다.

어렵게 집을 구해 이사를 하고도 수도 가스 전기를 직접 따로 신청해야 한다. 그나마도 은행에 계좌를 열기 전에는 불가능하다. 계좌를 여는 것도 간단치가 않다. 거기다가 인터넷을 신청하면 세 주쯤 걸려 설치된다고 하니 걱정이 다. 이 원고를 쓰고 나서 근처 인터넷 카페를 찾아가 보내야 하는 처지이다. 5분 만에 계좌가 생기고 전화만 하면 당장 인터넷이 깔리는 대한민국은 정말 좋은 나라이다. 더구나 모두들 한

국어를 쓰지 않는다.

외국에서 사는 일은 귀찮고 번거롭다. 특히 한국어만 유창한 나 같은 사람에게 더 그렇다. 단순한 여행객 신분만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다. 여행객으로 사는 것은 기본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이고 임의적이다. 의무와 책임으로부터 면제되고 스미는 대신 스쳐 지나가는, 그것은 삶이라고 할 수 없다.

현실에 고착되지 않기 위해 우리는 가끔 여행을 떠난다. 여행은 여러모로 유익하다. 정신은 고양되고 정서는 풍부해진다. 과거가 되돌아보이고 미래가 설계된다. 세계관은 넓어지고 감각도 한층 세련되어진다. 그러나 여행만 하며 살 수는 없다. 역사적으로 우리가 여행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생활을 위해서이다. 여행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삶을 위해 여행을 하는 것이다.

더러 삶을 여행처럼 생각하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점에서 그런 태도에 유익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훨씬 엄격하고 너무나 구체적이다. 자질구레하고 산만한 온갖 디테일이 모여 삶을 이룬다. 삶은 결코 추상이 아니다. 소가 없으면 소 우리가 깨끗하겠지만, 그러나 소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익도 사라진다는 취지의 말이 잠언에 나온다. 삶은 그런 것이다.

〈소설가·조선대 문예창작학과 교수〉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설

‘구색 맞추기식 인적쇄신’ 경계한다

다음주 초 국무총리를 포함한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이 교체될 전망이다. 이번 인사는 이명박 대통령이 집권 2기 국정지표로 잡은 국민통합과 중도실용을 구현하기 위한 첫 단추다. 대통령이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인적쇄신 의지를 내비치고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내각 개편의 핵심인 국무총리 인사를 둘러싸고 설이 무성하다. ‘호남이나 충청권 출신 총리론’에서부터 ‘50대 총리론’ ‘여성총리론’ 등 다양한 대안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 성법에 의한 구색맞추기식 인적쇄신으로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정치적 효과만 노린 ‘무늬만 통합’에 그칠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인적쇄신은 국무총리에 비 영남 출신을 기용한다고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몇 사람을 바꾼다고 국정 운영의 큰 틀이 변화될 것으로 믿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역대 정권에서 수없이 되풀이한 지역안배가 실질적으로 얼마나 국

민통합에 기여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이명박 정권 들어 호남 확대론이 끊이지 않고 있다. 청와대 고위직과 4대 권력 기관장은 물론 주요 부처 핵심 요직에 호남출신은 찾아보기 힘들다. 현 정부의 호남 확대가 군사정권시절보다 더 심하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김대중 전 대통령 서거 이후 화해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지금이 국민 통합의 적기다. 당령 인사가 국민통합의 출발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고위직 뿐 아니라 공직 사회 전반에 당령 인사가 이뤄져 특정 지역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여처구니 없는 일이 없어야 한다.

망국병으로까지 불리는 지역감정도 결국 지역차별 인사에서 비롯된 것이다. 특정지역의 패권주의적 인사구도에서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절대 발휘될 수 없다. 인적쇄신이야말로 소통의 시작이다.

허술한 대책이 신종플루 불안감 키운다

신종플루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가 대유행을 경고하고 있으며 각급 학교가 본격적으로 개학하면서 집단 감염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광주·전남지역에서도 휴업이나 휴교에 들어가는 학교가 속출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신종플루 대유행시 최대 2만여명의 사망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민주당 최영희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신종플루 유행규모를 입원환자 10만~15만명, 사망자 1만~2만명으로 추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와 백신 등을 통해 적극적인 방역 대책을 펼쳤을 때의 예상 수치이며, 방역 대책이 없는 경우에는 사망자수가 최대 4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됐다.

그럼에도 정부 대책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 신종플루 예방 백신과 치료제가

턱없이 부족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거점 병원과 약국이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당국과 의료기관간 손발도 맞지 않고 있다.

어제부터 각급 학교에서 등교 학생의 발열 상태를 확인키로 했으나 이마저 장비와 인력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다수 학교에서 체온계를 마련하지 못한다. 발열 상태 점검에 나선 교사들이 수업준비 시간을 뺏기고 등교시간이 늘어지는 등 현실성이 없는 대책이라는 지적이 많다.

신종플루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하나 질병에 대한 막연한 공포는 경계해야 한다. 신종플루는 철저히 대비하면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 아니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엉뚱한 대책이 국민들의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신종플루는 관계 당국과 온 국민이 힘을 합쳐야 이겨낼 수 있다.

無等鼓

‘망양보외(亡羊補牢)’란 ‘양을 잃고 우리를 고친다’는 뜻이다. 중국 전한(前漢)시대 학자 유양이 편찬한 ‘전국책(戰國策)’에 나오는 말이다.

초나라 양왕에게 간신배를 멀리하고 사치하지 말고 충언하다 쫓겨난 장신이 진나라의 침공을 받고서야 자신을 찾아 대책을 묻는 왕에게 했다는 얘기가 있다. 우리 속담인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와 같은 말이다.

이와 대비되는 말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한 말에 비유한 ‘미우주무(未雨綢繆)’가 있다. 시경(詩經)의 ‘비 내리기 전 뽕나무 뿌리검질로 틈새를 단단히 막았으니 누가 이

마른 다음에 우물을 파지 말라’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세상은 일에 ‘미우주무’를 실천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빗물이 새지 알기 어렵고, 실사 샌다 해도 무슨 큰일이냐 하는 생각들이 광배해 있어서이다. 정작 비가 쏟아져 집들이 물에 잠기고 제방이 터져서야 호들갑을 떠난다.

2학기가 시작되면 신종플루 대유행이 경고되고 있다. 보건당국은 연말까지 치료제 타미플루 5백만명분을 확보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스위스 로슈가 특허생산하는 타미플루는 현재의 주문량만 소화하기에 두 수년이 걸린다. 특

등을 하물 수 있으리라’에서 유래했다. 유비무환(有備無患)과 비슷한 용어로 ‘맹자(孟子) 공손축편(公孫丑篇)’과 명나라 주백로의 ‘치가격언(治家格言)’ 등에도 나온다. ‘제후 장상들이 국가가 태평 무사할 때 문을 수리하는 준비를 할 줄 모르고 자신의 안일만 탐내다 화를 자초한다’ ‘비 온 뒤에 문을 수리하고 목

단의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런데 유비무환(有備無患)과 비슷한 용어로 ‘맹자(孟子) 공손축편(公孫丑篇)’과 명나라 주백로의 ‘치가격언(治家格言)’ 등에도 나온다. ‘제후 장상들이 국가가 태평 무사할 때 문을 수리하는 준비를 할 줄 모르고 자신의 안일만 탐내다 화를 자초한다’ ‘비 온 뒤에 문을 수리하고 목



미우주무(未雨綢繆)

기고

백남선



목회자이기 때문에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다.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섬기는 한 방편으로 심방을 한다. 이 심방을 하러나 자선스럽게 남의 집을 방문해서 상처를 받은 사람을 위로해 주고, 낙심에 빠진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소망을 준다. 이때, 방문하는 집마다 그 사람의 직업이나 활동하는 영역에 따른 실용도서가 몇 권씩 책장에 꽂혀 있는 것을 보게 된다. 그런데 그 책들에서 한 공통점

즉, 이분이 우리 교회에 출석하시면서 행복한 삶을 향유하시도록 섬김의 사역을 다하겠는가에 대한 자기 다짐이다. 일본의 실업가 이나모리 가즈오는 기업의 경영자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다. “경영자는 어떻게든 이익을 내려고 하고, 반드시 이익을 내야 하지만 혼자 많이 벌면 좋겠다는 자기에만으로 돈을 벌면 오래 가지 못합니다. 거래처와 종업원을 포함한 모든 사람을 행복하게 해준다는 더 큰 사랑이 필요하다”고 했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을 발견하게 되었는데, 그것은 ‘부림’에 대한 것들이라는 사실이다. 직장의 상사로서 아랫사람을 관리하는 것을 코치한다거나 영업사원으로서 고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코치해 주는 책들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면 한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목사도 성도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책이라도 찾아야 할까? 목사로서 교회의 운영에 대하여 생각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에 대한 접근은 전혀 다르다. 한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 천국의 백성이 되도록 돕는 것과 교회의 성도가 되도록 돕는 것은 목회자의 자기 철학이 있어야 한다.

목회를 하면서 더 한 사람의 성도가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보다 먼저 생각하는 것은, “내가 과연 이분을 위해, 또는 자제로서 사랑하고, 이분의 인생에 대하여 섬김의 책임을 다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다.

목회를 시작하면서 줄곧 내 생각은 교회는 행복발전소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교회가 사람들을 행복하도록 해주는 곳이라면 목회자는 행복기술자이다. 영혼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매일,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오늘도 성도들의 행복을 소망하면서 새벽의 기도를 시작한다. 우리 교회에서 한 지체로 지내는 이들이 행복해질 때, 우리 교회는 행복하다. 그리고 그들의 기쁨과 아울러 이웃의 행복해지도록 섬김을 다하는 것이 뜻있는 인생이라 생각한다. (미문교회 목사)

지구 온난화로 바뀌는 ‘농작물 지도’ 장기대책 시급

최근에 전남 해남군 농업기술센터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해 파파야, 구아바 등 열대과실을 도입해 적응성을 검토한 후 재배에 성공하면 지속적으로 재배를 확대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접했다. 이는 우리나라 기온이 자꾸만 더워져 점차 아열대성 기후로 변해가는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얘기이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아카시아 꽃, 등꽃이 거의 없애고 있는 꽃으로 변화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는 그다지 많지 않은 것 같다. 꽃 향기가 나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온난화 영향 탓이라고 한다. 지구의 온도는 지난 100년간 섭씨 0.3~0.6도 정도 뚜렷이

올라갔고 최근 25년간 이러한 징후는 가속화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만 년 동안 지구의 온도변화가 섭씨 1도 이상 변한 적이 없다는 것을 감안하면 온난화가 더욱 극명하게 나타나는 북반구의 경우 지난 1,000년 중 20세기의 온도 상승이 가장 크다. 이제 온도가 오르면서 우리나라 농작물 지도가 바뀌고, 사과, 복숭아 같은 과일이 강원도에서도 재배 된다는 거, 남녘에선 열대 과일을 생산하는 등 재배 한계선이 자꾸 북상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것이다. ▲오정환·광주시 광산구 오선동

박민수



처서(處暑)가 지난 들녘에는 뜨거운 8월의 햇볕을 벗 삼아 벼들이 튼실하게 자라면서 풍성한 가을 준비에 한창이다. 전남의 벼 재배면적은 18만 4천여ha로 전국 재배면적의 20%를 차지할 뿐만 아니라, 연간 생산액은 1조9천억 원에 이를 만큼 농가소득 면에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작물이다.

이런 전남 농가의 주소득원인 벼농사가 지구온난화에 의한 태풍과 집중호

조기 재배한 맛있는 햅쌀로 소비자들의 입맛을 사로잡고 전국의 햅쌀 틈새시장을 선점한다는 계산에서다.

또 한편으로는 수확기가 빠른 조생종 벼 재배를 확대하면 뒷그루 작물로 택사나 겨울채소로 시금치 등 소득작물을 심고, 축산농가에서는 사료비 절감을 위해 청보리 등 조사료작물을 재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벼의 수확시기 연장과 뒷그루 작물재배 등으로 값 비싼 농기계 이용률도 높일 수 있는 1석 3조

햅쌀의 틈새전략

우, 도복 등으로 인한 기상재해의 빈번한 발생과, 후기에 발생하는 병해충, 이삭도열병 등 병해충 피해로 쌀 수량과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가 요구하는 맛 좋은 고품질의 쌀을 생산하는데 위협요소로 지적되어 왔다.

그리고 익을 때가 늦은 중만생종 벼 품종을 90% 이상 재배하고 있는 전남의 친환경 고품질 쌀은 수확시기가 늦어 전국적으로 한계면에 쏟아져 나오는 일반 쌀들과 무한경쟁을 해야 하는 2·3종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뿐만 아니라 쌀의 공급량이 소비량을 웃돌아 농업인들이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이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전남도에서는 시책사업으로 올해 조생종 벼 재배면적을 전체 재배면적의 7.7%인 1만4천ha로 확대 재배했다. 일반 재배보다 수확시기를 20~30일 앞당겨 8월 하순부터 9월 초순까지 6만3천여의 햅쌀을 생산 다른 지역에서 밥맛이 떨어지는 묵은 쌀을 공급할 때 전남만은

의 경제적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다.

전남도는 익는 시기가 빠른 조생종 품종을 빨리 모내기하면 익는 시기에 온도가 높아서 쌀 품질이 떨어지고 병해충이 자주 발생한다는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생종이지만 밥맛과 품질이 뛰어나고 수량 면에서도 결코 중만생종에 뒤지지 않은 운광벼를 확대 공급했고, 그동안의 시험연구 결과를 토대로 거름주기, 물관리 등 쌀 품질을 떨어뜨리지 않고 소비자가 찾는 맛 좋은 쌀을 생산할 수 있는 재배기술을 정밀해서 농업인 교육도 수시로 실시하는 등 영농철에는 현장 기술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왔다.

친환경 전남의 맑은 물과 비옥한 토양 그리고 풍부한 햇볕을 밑바탕으로 알차게 자라 전국의 유통시장에 나선 전남 햅쌀이 시장 공략에 성공하면서 다소 늦게 수확되는 중만생종 품종의 쌀까지 안정된 고액 확보로 판매문제를 해결하는 전략적 계기가 될 것이다. (전라남도농업기술원장·농업경제학박사)

가구 모서리에 감싸싸 싸우면 아기 안전 ‘안심’

며칠 전 옆집 아기가 친구집에서 놀다가 화장대 모서리에 눈가를 찔러 큰 부상을 당했다. 다행히 눈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정말 1cm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부상을 피했다. 그 사고가 일어난 직후 그 가구의 모서리를 부드럽게 만든다며 꺾고 갈고 사포를 가져다가 문질렀다고 한다.

아이들은 집안에서도 특별한 생각 없이 뛰어다니고 가까운 거리인데도 부딪침을 건기 때문에 실수로 미끄러져 부상을 당한다. 특히 날카로운 장난감이 방바닥에 놓여져

있는데 그 위로 넘어지면 더 큰 부상을 입게 된다. 어떤 실험을 보니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지는 걸 가정해 성인 침대 높이인 60센티미터에서 3.1킬로그램짜리 마네킹을 떨어뜨려 보았더니 무게의 43배가 넘는 134kg의 충격을 받았다.

어린이나 노인이 있는 가정은 가급적 모서리가 둥글게 처리된 가구나 높이가 낮은 침대를 사용하고, 모서리 감싸개를 싸우는 게 안전할 것 같다.

▲이세영·광주시 광산구 비아동

Table with 2 columns: 光州日報 and The Kwangju Ilbo. Includes contact info, subscription rates, and address.